

## 태국 선교 [심태국 & 심위숙 선교사]

2022 년 4 월 선교 편지

저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학기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하게도 최근 신학교의 신축이 거의 끝나 저희 가정이 2021 년 12 월 4 일 신학교 안으로 이사를 옴으로써 좀 더 안정되게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늦지 않게 출근하기 위한 염려로 밤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등 여러모로 삶의 질을 높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방학 중에도 학기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하여 연구와 다음 학기에 가르칠 과목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최근 2 년간 졸업면접을 할 때 마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자신에게 커다란 영향과 유익을 준 과목으로 아내의 강의를 언급하며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교사의 강의를 통해 자신의 삶과 가정이 완전히 회복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역에서 자신이 배워 도움을 입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가르쳐 주는 일에 평생 집중할 것이다; 조선교사의 강의가 자신의 삶과 사역에 큰 전환점이 되었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여 현재 사역에서 실제로 매우 큰 도움을 입고 있다; 이미 졸업한 이후지만 조선교사의 과목을 듣고 싶어 수강신청했다; 코빗-19 이전에 들었던 조선교사의 강의중 한 과목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한 과목이었는데,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 바뀌기 바로 전에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참 감사하다. 이와 같은 졸업생들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조위숙 선교사는 4 년 동안 매 학기에 한 과목씩 밖에 가르치지 않았고 태국말도 태국인 교수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신학생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역을 기뻐하신다는 격려이며 확인이라고 여겨져 저희는 더욱 더 충성되고 겸손하게 사역에 임하려고 합니다.

코빗-19 상황으로 인해 태국침례신학교는 최근 세 학기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에 사는 신학생들의 경우 일기변화에 따라 인터넷 사정이 자주 여의치 않고 정전도 잦아 종종

녹화된 강의에 의존해야 하는 등 수업 운영에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교실 수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매주 강의를 멈추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고 또 신학생들도 사역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신학수업을 병행하여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의 유익한 면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새학기에 저는 헬라어 I, II 와 히브리어 I(세 과목)을, 조 선교사는 종의 도, 평신도 사역자 세우기(두 과목)을 가르치게 됩니다.

현재 신학교 방침으로는 새학기부터 대면수업 (온라인 수업도 병행)을 할 계획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저희 부부는 신학교를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동네, 학교, 공원 등에서 개인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사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후원자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를 믿고 태국신교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이러한 간증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더욱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사역에 임하고자 합니다.



#### 기도제목

1. 저희 부부가 영육간에 늘 강건하며 주님과 긴밀히 동행하기를 위해
2. 새학기(5 월 말-9 월 말)에 가르치는 과목을 통해 태국신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역적 기초와 원리가 형성되기를 위해(심선교사: 헬라어 I, II 와 히브리어 I; 조 선교사: 종의 도, 평신도 사역자 세우기)
3. 토요일 오전의 개인전도를 통해 잃어버려진 영혼이 주님께 많이 돌아오도록
4. 텍사스와 미시건에 있는 세 아들 부부 (셋째는 데이트 중에 있음)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도록